

퇴직연금 수익률 강통수준... '물가' 감안 댄 원금 밀돌아

(1.26%)

(1.5%)

DC형 퇴직연금 평균수익률 1.26%
비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0.40%

꼬박꼬박 떼어가는 수수료에
은행·보험사 등 운용사만 배불러

10년차 직장인 박모 씨는 요즘 퇴직연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지난 2009년 가입한 확정기여형(DC)형 연금의 누적수익률이 5.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만 하면 노후는 걱정이 없을 것이란 은행원의 말만 믿고 놔뒀던 게 잘못이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5년차 직장인 김우울(30·가명)씨도 퇴직연금 명세서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몇해 전 연 4.8%로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는 금융인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 때문에 가입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가입 의무화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서다.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1.26%(은행 DC상품 기준)에 머물고 있다. 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퇴직연금 운용사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13개 시중은행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

(단위:억원, %)

	2018년 2분기		2017년		2017년말기준 연간 총 비용부담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BNK경남은행	2,809	1.33	2,651	1.74	0.43
BNK부산은행	3,780	1.43	3,586	1.77	0.49
DGB대구은행	5,631	1.5	5,366	2.22	0.56
IBK기업은행	51,273	1.37	48,574	1.67	0.49
KB국민은행	62,119	1.27	58,784	2.13	0.62
KDB산업은행	3,032	1.28	2,874	2.02	0.56
KEB하나은행	28,768	1.28	26,792	2.01	0.52
NH농협은행	33,434	1.24	31,930	2.04	0.57
SH수협은행	0	0	0	1.56	-
광주은행	4,358	1.38	4,109	1.72	0.52
신한은행	58,051	1.68	55,417	2.17	0.66
우리은행	35,513	1.28	34,513	2.08	0.48
제주은행	824	1.6	756	1.71	0.42

/은행연합회

◆ 강통 퇴직연금 넣을수록 손해?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의 2분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0.91%에 비해 뒷걸음질 했다. 물가상승률, 기회비용, 수수료 등을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DC형은 회사가 납부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된 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관리해줄 기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가입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가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적립금을 운용한다.

13개 시중은행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강통 수준이다.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0.40%로 부진하다. 노후는 커녕 당장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BNK경남은행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은 -1.08%로 가장 부진하다. 부산은행의 상품도 -1.03%로 저조하다.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0.66%, -0.7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그나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40%로 지난해 말 1.48%보다 나빠졌다.

수익률은 강통수준이지만 은행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고 있다. 가입자들

이 지난해 이들에게 낸 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0.52%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생명보험회사의 6월 말 기준 직전 1년 DC형 평균 수익률은 1.92%에 머물고 있다. 물가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익률은 낮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2.16%에 불과하다. 이중 교보생명의 원리금보장형은 2%(1.94%)가 채 안된다.

이들 보험사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12%였다. 이 중 IBK 연금의 수익률은 -8.15%까지 추락하면서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다. 삼성생명(-0.34%), 흥국생명(-0.39%), 교보생명(-0.08%), 동양생명(-0.72%)등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한화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의 3월 말 기준 DC형 평균 수익률은 2.13%였다.

확정급여(DB)형도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 13개 시중은행의 2분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13%에 불과하다. 12개 생명보험회사의 6월 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1.67%로 전분기 2.65%에서 급격히 나빠졌다.

◆ 월 198만원 필요한데...퇴직연금은 벌써 마이너스(-)

불안한 노후를 퇴직연금에 맡겨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직장인 이모(45)씨는 "당장 꺼내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며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과연 최선의 노후 대비용 투자인지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1953명(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74세 비은퇴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노후에 월 19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노후 대비로 저축하는 돈은 월 41만원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은퇴준비 수준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3층 구조의 한 축이라 말한다. 이대로 가다간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C형 가입자 비중은 2012년 34.7%에서 지난해 말 40.4%로 늘었다. 올 상반기(1~6월) 적립금액도 DB형은 줄어든 반면 DC형은 2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입자의 상품선택에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기업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등 노력”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200여개 가맹본부를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여개 가맹점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또한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 및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로 점주 단체 신고제와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박민용기자 parku7854@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보이콧' 가능한가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가맹점주 독려, 집단행동 추진

소상공인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고을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 총조사 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없으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로 처벌받는 것은 가맹점주들이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등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에 카드대금결제일 하루 단축

>> 1면 '금감원, 금융감독혁신...'서 계속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

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3조 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